

2024. 7. 28.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설교: 임동진

본문: 다니엘 Daniel 3:26-30

제목: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설교 35 분, 11 페이지, p10-21

(표준새번역) 3:26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ESV) 3:26 Then Nebuchadnezzar came near to the door of the burning fiery furnace; he declar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come out, and come here!" The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came out from the fire.

3:27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3:27 And the satraps, the prefects, the governors, and the king's counselors gathered together and saw that the fire had not had any power

over the bodies of those men. The hair of their heads was not singed, their cloaks were not harmed, and no smell of fire had come upon them.

3:28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3:28 Nebuchadnezzar answered and said, "Blessed be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ho has sent his angel and delivered his servants, who trusted in him, and set aside[f] the king's command, and yielded up their bodies rather than serve and worship any god except their own God.

3: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못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3:29 Therefore I make a decree: Any people, nation, or language that speaks anything against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hall be torn limb from limb, and their houses laid in ruins, for there is no other god who is able to rescue in this way."

**3:30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3:30 Then the king promot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the province of Babylon.**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유적들 중에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여신에게 바친 ‘이슈타르 문’(현재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 정원’, ‘바벨론의 지구라트’(에테메난키, 현재 이라크 소재 바벨론 유적지 내),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현재 이라크 유적지 내) 등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수메르 문명)은 여러 신을 섬기는 제국이었습니다.

주신 ‘마르둑(Marduk)’은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세계를 창조한 신이며,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마르둑의 제사장이라고 자처했으며 신전을 세웁니다.

마르둑의 아들 네부(Nabu)는 지혜와 학문, 서사와 기록의 신이며, 느부갓네살의 이름에도 네부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Ishtar), 달의 신 난나(Nana, Sin)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많은 건축물과 특히 신전을 여러 곳에 만들었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여러 신들은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앗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아랍, 이슬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종교는 인도(인더스 문명)의 종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신교의 신앙, 풍요와 다산의 신들, 동물 숭배 뿐 아니라, 신전의 구조와 역할이 동일하기까지 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시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간 그 세상 뿐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역사 속의 세상과 지금 우리의 세상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 세상에 여러 주인(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념’ 혹은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하늘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복과 풍요를 주고 재난을 주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지금은 더 앞선 기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문화, 돈, 권력, 과학이 그 신의 자리를 대신할 뿐입니다. 이름과 외형이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이끈다는 점에서 ‘주인’이며, 인간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의존하고 도움을 청한다는 점에서 ‘신’입니다.

마 13:18,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주인과 신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13:18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이 세상의 주인, 우리의 신앙을 가로 막는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13:19 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믿으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 자체를 거부합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13:19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ESV) Matthew 13:19 When anyone hears the word of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es away what has been sown in his heart. This is what was sown along the path.

신은 없고, 성경은 믿을 가치가 없고, 이런 문명화된 시대에, 이런 첨단 기술의 시대에 신앙과 종교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과 신은 아주 많고, 그 신들은 모두 저마다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신론은 모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이 세상의 주인은 거짓 행복, 거짓 기쁨, ‘쾌락’입니다. 마 13:20 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섬기지 않으려는 신앙, 예수
 믿으면서 칭찬만 듣고 싶고, 만사 형통을 기대합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13:20 또 돌짜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ESV) Matthew 13:20 As for what was sown on rocky ground,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and immediately receives it with joy,

그러나, 21 절,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진답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지 보십시오. 환란과 박해!
 그리스도인에게 환란과 박해는 신앙과 함께 받게 되는
 기쁨이며 명예입니다. 바른 신앙은 환란, 박해, 순교
 같은 고통의 순간도 지나겠지만, 일상 생활에서 땀,
 수고, 책임,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3: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Matthew 13:21 yet he has no root in himself, but endures for a while, and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s on account of the word, immediately he falls away.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듣고 느꼈던 기쁨(쾌락)은
 환란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손해 볼 것 같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도 놓아버리고, 하나님도 놓아버립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고통을 피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번째 이 세상의 주인은 물질적 풍요와 부요함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한 많은 신들이 물질적 풍요와 부요함을 주는 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신은 비와 날씨를 주관하고, 어떤 신은 전쟁을 주관하고, 어떤 신은 많은 열매와 많은 자녀를 약속했던 것처럼, 물질적 풍요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신입니다. 22 절, 가시덤불로 비유되는 이 풍요의 신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13:22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ESV) Matthew 13:22 As for what was sown among thorns,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but the cares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choke the word, and it proves unfruitful.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고 탈 종교화 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그들의 인생 주인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바벨론도 세상이 신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도 세상의 신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신앙 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리 앞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며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과 그 추종자들은 ‘신은 없다’ 혹은 ‘너희 하나님만 신이라고 우기지 마라’고 말합니다.

‘네만 착하게 살 필요 없잖아’, ‘지금 양보하면 호구 되는거야!’, ‘너만 기쁘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은 모른 척 해도 괜찮아!’ ‘인생의 목표는 너의 행복이야’라고 가르칩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네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 백, 명품 시계 하나 없다면 인생 헛 산거야’, ‘이 나이쯤 되면 이정도 성공, 이정도 자리, 이정도 집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뒤쳐진 거야’,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인생 끝난거야’, ‘너의 직장, 수입, 너의 소유가 너를 가치를 결정해!’라고 말하며 우리를 염려와 걱정을 자극하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세상 신들과 세상 주인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행동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26 절, 느부갓네살 왕은 뜨거운 벽돌 가마 옆으로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이때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표준새번역) 3:26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ESV) 3:26 Then Nebuchadnezzar came near to the door of the burning fiery furnace; he declar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come out, and come here!" The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came out from the fire.

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온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28 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사람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면서 세 사람의 신앙적 결단과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여러 신들 중에 힘세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높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방인도, 세상 사람
입술로 흉내내는 걸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3:28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3:28 Nebuchadnezzar answered and said, "Blessed be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ho has sent his angel and delivered his servants, who trusted in him, and set aside[f] the king's command, and yielded up their bodies rather than serve and worship any god except their own God.

29 절에 왕이 온 천하에 명령을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3: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못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3:29 Therefore I make a decree: Any people, nation, or language that speaks anything against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hall be torn limb from limb, and their houses laid in ruins, for there is no other god who is able to rescue in this way."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진짜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3:18 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라는 신앙이 나온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그 자리에 두셔도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3: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3:18 But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뿐 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신 4:35 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4:35 그러나 너희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Deuteronomy 4: 35 To you it was shown, that you might know that the Lord is God; there is
no other besides him.

모든 율법과 성경의 핵심을 표현한 '쉐마'에서

이렇게 꼭 짚어 말합니다.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Deuteronomy 6: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5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5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사 45:5,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 나는 여호와(주인)다, 나 밖에 다른 주인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 45:5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Isaiah 45:5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 other, besides me there is no God; I equip you, though you do not know me,

돈의 신, 성공의 신, 명예의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서

- 고백: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 결단: 나의 평생에,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